

# GILLETTE: BILLED AFTER DEATH

FERDINANDO FREGA



# GILLETTE: 죽은 뒤에 날아온 청구서

*The Art of Attraction · 07*

죽는 것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. 나 같은 남자에게 유일한 걱정은 장소의 선택이었고,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틀림없이 가장 좋은 곳을 골랐을 것이다. 내가 모르는 여자의 침대.

내 생각에 그곳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와 앞으로 될 우리 사이를 건너가는 단연 가장 멋진 경유지였다. 혼수로 쾌락의 앱을 챙겨 갈 계획을 늘 세워 둔 채로.

아하하하하하하

여섯 번의 임상적 혼수상태가 시도했다가 실패했고, 기대 여명은 대략 48시간에서 길어야 30일 사이라고 어림잡아 발표되었다. 하지만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의사였다 — 처방을 공공 의료 서비스가 지불해 주는 의사들,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다. 제약 회사를 위한 맞춤 처방 속에 숨겨진 수수료로 애인과 휴가를 떠나는 의사도 있다 — 그리고 결국, 단 한 번도, 기상학 전문가의 진짜 예보는 아니었다.

그리고 매번 침대 옆에는 — 어김없이,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같은 것이, 같은 규격과 색깔, 같은 세부, 숨구멍 하나 없이, 마치 맞춤 제작한 것처럼 — 이름표가 붙은 관 하나가 놓여 있었다. FERDINANDO FREGA.

아무도 웃지 않았지만, 관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. 그동안 지옥의 이사회는 나를 지상에 남겨 gillettenarrative.com으로 모두를 귀찮게 하도록 두는 것이 더 이득인지, 아니면 전화도 돈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넘겨 보내는 것이 나은지 결정

하고 있었다. 그곳에서 나는 틀림없이 그들의 현재 체제까지 흔들여 놓을 새로운 ALFHABETDEVIL을 만들어 냈을 테니까.

그리고 내가 지상에 남기로 된 것이 분명해지자, 어느 날 장례식장의 청구서까지 날아왔다. 세부 내역과 비용 항목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다.

영구차 정차 6회;

관 예약;

이중 외피 모델, XXL 사이즈;

운구인 8명 30시간 투입;

대기 상태 유지 및 대기 시간;

세금 및 부가가치세.

이자 및 물가 상승분.

합계: 3,500유로,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이체로 납부.

마법에 걸린 듯 나는 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러 갔다. 실수라고 확신하면서. 그런데 거기서 내 정보를 발견했다. 완벽하게 정확했다.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.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값을 치러야 했고, 그 요구는 반박할 수 없었다.

하지만 내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. 퇴원한 뒤, 여가 시간에, 집에서의 긴 기다림 동안, 나는 공들여 장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인의 아들 행세를 했다. 시간을 좀 들여 농담에 농담을 이어 가며 비서의 호감을 얻은 뒤, 나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, 그녀는 어렵지 않게 응했다. 어쨌든 나는 죽은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으니까.

나는 그 일을 직접 보고, 한 남자가 정의상 죽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터였다 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살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. 그게 나를 매혹했다.

나는 그녀의 집으로 데리러 갔다. 그녀는 진하고 달콤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. 나를 데려가요, 난 당신 거예요, 하고 말하는 그런 향수였다. 그녀는 마흔 살쯤이었고, 꽃다운 청춘의 한창때라고 하기는 어려웠다.

나는 그녀보다 꽤 나이가 많았지만, 우리 집안에서 나이는 언제나 출생증명서의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었다. 게다가 신분증을 들고 침대에 들지는 않는다. 그건 결혼할 때 성당에 가져가는 것이다.

저녁 식사 후 나는 죽음의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, 그건 신성하고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, 합의되지도 제안되지도 않은 그 품질과 종류에 대해서였다. 주문은 자동으로 나간 것이었다. 가엾은 그녀는 그 순간의 곤란함을 느꼈고, 나에게 할인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. 그런데 얼마나?

나는 공격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— 어쨌든 나는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으니까 — 그래서 돈 문제는 다른 날로 미루었고, 그녀도 동의했다.

저녁값을 낼 때가 되자, 마법처럼, 나는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. 하지만 그녀는 친절하고 상냥하게도 자기가 내줬다고, 문제없다고 말해 주었다. 나는 아직도 그 금액을 기억한다. 169유로.

식당을 나와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사과했다. 서류가 전부 든 지갑을 잃어버렸고, 그날 밤만큼은 로맨스도 분실물

속에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.

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고개를 끄덕였다. 여자들만이 할 줄 아는 방식으로.

한 시간쯤 뒤 나는 그녀에게 지갑을 찾았다고 문자를 보냈고, 이어서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문장들을 보냈다.

있잖아요, 내가 그 청구서의 주인공이에요.

내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.

문제는, 내가 아직 살아 있고, 계속 당신 회사에 돈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.

169유로가 그 증거예요.

죽지 않는 남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.

*Ferdinando*